

세라와 이건의 서지통정 이론 고찰

A Study on bibliographic control theory of Shera and Egan

남태우(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오지영(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Nam Tae-Woo,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Oh Ji-Young,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정보매체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범람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지통정을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라와 이건의 사회인식론을 토대로 연구하고, 미시적 서지통정과 거시적 서지통정을 특징을 비교하여 다매체 시대에 서지통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1 서론

도서관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며,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일찍이 세라(Jesse H. Shera)가 말한 바 있는 도서관의 전문적 기능 즉, 정보자료의 선택, 수집, 조직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지적 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용이하게 탐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분류, 목록, 즉, 접근 시스템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은 시작되었고, 이러한 접근 체계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문헌정보학은 발전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의 자료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가상도서관이 등장함으로써 전통적인 도서관의 이념은 물론 고유 기능

이었던 자료조직 분야에 대한 고유한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

서지통정이란 기록된 모든 정보가 필요한 때 쉽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조직화되고 배열되게 하는 오퍼레이션 전체를 말한다. 색인작성법, 편목, 분류 등은 바로 이러한 서지통정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들인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서지통정 메카시즘도 매체의 발전, 정보시스템의 발전, 특히 이용자정보욕구의 다양화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의 등장으로 서지통정시스템도 변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서지통정의 이론적 배경이 된 학자들의 논문을 토대로 의미를 재정립하고 미시적 서지통정과 거시적 서지통정을 특징을 비교하여 앞으로 서지통정의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헌우주론

피어스 버틀러(P. Butler)는 문헌세계의 통일적인 질서를 해명하는 도서관학이라는 발상에 입각하여 도서관학의 대상인 문헌군(群)을 문헌우주라고 불렀다.

문헌우주란 자연적 세계의 성질을 갖는 도서세계와 그 속에 포함되는 스칼러십 세계의 양면성을 아울러 갖는 존재이다. 스칼러십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카오스로서의 도서세계에 작용하는 수단이 버틀러의 경우 아직 명시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지통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헌우주라는 개념을, 지식을 인식과정이나 결과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 가능한 문헌군으로서 다루는 방법론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버틀러는 급격히 발달하는 과학과 그 결과 생산되는 문헌의 양적 증가를 배경으로 당시 미국 도서관계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보고, 부과된 일의 크기를 이처럼 표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비블리오그래피 외에 출판유통과 도서관의 존재를 들고 있는 것도 다시금 확인해 두고 싶다.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시사적이며 앞으로의 논의에 효과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의 문헌 우주관은 문

헌과 인간 사이의 동적인 운동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서지통정의 대상인 문헌 세계의 존재를 명확히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2.2 서지조직화

서지조직화는 목록, 서지, 색인, 정보검색 등을 서지의 조직화로 보는 방법론이다. 즉 기록된 문헌이나 출판물을 조직하고 관리한다는 입장이며, 단순히 목록측면의 관점만이 아니고 주제접근이 가능한 분류나 주제명이나 서지 관리적인 면에서도 목록법을 보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목록법, 색인법, 분류법, 서지, 정보검색 등을 서지조직화의총괄 시스템 중의 목록법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세라의 분류목록 「The classified catalog」과 「도서관과 지식조직화론 Libraries and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그리고 니드햄(C. D. Needham)의 「도서관 지식조직화론 Organizing knowledge in libraries; an introduction to information retrieval」이 있으며 또한 포스켓(A. C. Foskett)의 「정보주제접근법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도 서지조직화의 측면의 이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이며, 그들의 이론을 전공문헌에서 전개시키고 있다. 이들 학자군의 특징은 서명이나 저자 등의 서지사항(bibliographic item)보다도 기록 문헌중의 주제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든지 더욱이 도큐멘테이션적 사고

에까지 미치는 점이 많다. 자료조직화에 대한 다면적인 각도에서 생각하면 목록법 및 목록을 서지조직의 광범위한 사항으로 보는 시각이다.

2.3 서지통정

1946년 11월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개최된 ‘문화, 교육, 과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회의’는 ALA가 주최한 것이다. 이 회의의 권고문에 따라 미국국회도서관(LC)의 장관인 루서 에반스(Luther Evans)는 LC 내부에서 국내 상황을 조사하는 비공식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작성된 밴더빌트 보고서에 사용된 “서지적인 통정(bibliographical controls)”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사용된 용어이다. 그러나 아직 학술 용어라고 할 정도로 명시적 정의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1949년에 이 말을 명시적으로 처음 사용한 이건과 세라의 주장에 의하면 서지통정이란, 유럽에서 도큐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미국적인 명칭이다.

195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 도큐멘테이션이 재편성 되려고 할 때, 그러한 유럽의 개념이 세라와 이건에 의하여 통합되려고 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영역을 논의할 때의 키워드는 먼저 서지통정(1949)이었으며, 그 후에 도큐멘테이션(1950년대부터 1960년대 전반)과 서지조직화 활동(bibliographic organization, 1950년대 전반)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시카고대학 도서관의 연차연구대회에서 『서지조직화활동(bibliographic organiz-

ation)』이라는 주제로 대회를 주최하였다.(Shera & Egan 1951). bibliographic control이 왜 bibliographic organization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추측되는 바로는, 당시 매커시즘 선풍이 휘몰아치고 있던 상황 하에서 언론 통제나 검열의 이미지를 안고 있는 “control”이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피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현실적인 대응은 서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대우주론적 관점에 바탕을 둔 서지작성 협력·분담론이라는 서지 서비스에 있어서 정책 이론이라는 두 갈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전자는 사회인식론이라는 추상적인 도서관 이론을 낳았다.

2.4 서지기술의 단계론

도서관 목록의 존재이유는 접근개념에 바탕을 둔다. 전통적으로 자료는 이용자들이 그것들에 접근하여 획득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으로 서지통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보 그 자체는 양적으로 너무 많고 형태가 다양하며, 또한 이용자들은 매우 다양한 이용요구와 행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정보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검색도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표준화이다. 이 표준화가 형식화 된 것이 이른바 편목규칙이다.

2.4.1 Cutter의 3수준

약 일세기 전에 C. A. Cutter는 편목의

간략(short), 중간(medium), 완전(full)수준의 타당성을 인식하고 그 이론을 제기한 바가 있다. 그는 “간략목록이나 중간수준 목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완전수준도 더 완전한 수준 혹은 가장 완전한 수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도서관 환경에 따른 목록 작성에 대한 이론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Cutter의 이러한 개념을 계승하는 AACR2R은 규칙 1.0D에서 서지기술수준을 3수준으로 나누어 각 도서관의 장서규모와 필요성에 적합한 수준을 적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K. Horny에 의하면 최소수준목록의 지지자들은 “잠재적 이용자를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정보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기술된 형태가 더 효율적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제안된 최소수준목록은 많은 도서관과 네트워크에서 연구되고 사용되었다.

2.4.2 AACR2R에서 단계기술론

Cutter의 개념을 계승하는 AACR2R은 규칙 1.0D에서 서지기술수준을 3수준으로 나누어 각 도서관의 장서규모와 필요성에 적합한 수준을 적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AACR2R의 3수준은 표제지상에 나타난 정보 가운데 두 번째 발행사항, 대부분의 주기, 다국어 사본 정보 같은 특정 데이터 요소를 포함시킬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함으로서 편목자는 편목규칙과 자관의 정책 범위 내에서 자관 정보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수준 및 데이

터 요소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CR2R의 서지기술의 3수준이 자관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각 데이터요소의 기술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4.3 metadata의 3기술론

종래의 목록이 소장자료라는 정적이고 제한된 정보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면, 미래의 목록은 인터넷과 초고속정보망의 출현으로 발전된 동적인 네트워크 자원까지도 목록 기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한 활동에 의하면, 서지통정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킹 정보자원에 대해서도 정보의 생산자 혹은 중간적인 제공자가 어떤 통정수단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접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 통정 수단의 일부로서 현재 메타데이터가 시행되고 있다. 메타데이터(meta data)는 이러한 네트워크 자원의 기술필요성을 위해 정의된 것이다. R. Heery에 의하면 네트워크 자원인 디지털 정보자원을 기존의 목록의 개념으로 기술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3 세라와 이건의 서지통정론

서지통정 개념은, 이건과 세라라는 시카고 대학교의 두 연구자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그들은 이 개념을 보급시킨 최대의 공로자였다.

1949년 그들은 ALA목록분류회의 기관지에 「서지통정 서설(Prolegomena to bibliographic control)」이라는 표제의 짧은 논문의 서두에서 서지통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Egan and Shera 1949, 17)

‘서지통정’은 유럽사람들이 도큐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대신에 미국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기술적인 용어이다. 두 용어 중에서는 미국의 용어가 보다 기술적인 것처럼 보인다. 기계공학에서 제어(control)란, 기계가 그 에너지 소비를 최소로 하면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때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짜임을 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서지통정이란, 최고 속도와 최대의 경제성으로 기록정보의 총합체로부터 특정 과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지적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짜임을 말한다.

이건과 세라는 서지통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 하나는 그것을 만들어 내어 이용하는 도서관인과 연구자의 내부적 시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지적활동 전체라는 배경에서 보는 외부적 시점이다. 후자는 예를 들면, 사회학자의 관점에 서서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보다 넓은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서지통정은 현대문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도구 내지 장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Egan and Shera 1949, 17) 이 관점은 후의 서지이론으로부터 사회인식론에 이르는 논의의 선구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전자의 내부적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논문에서는 서지통정이 곤란해지는 원인으로, 과학정보 기록매체로서의 잡지와 기술 보고서가 증대하여 그것들이 종래의 도서분류와는 다른 주제검색 체제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분류법 개선을 검토하였다.

그들의 논문은 서지통정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국가 수준에서의 서지통정 정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3.1 사회인식론에서 지식조직

이건과 세라의 1950년대 서지론의 독창성은 이것이 단순한 서지편찬의 기술적 혹은 행정적인 제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인식론(social epistemology)라는 새로운 연구분야의 발전과의 관계로 기술된 점에 있다.

즉, 서지를 지식을 얻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간주하여, 지식의 사회적 생산 유통과정에 있어서 문헌지식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상대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시도한 것이다. 그들은 사회인식론을 「사회가 물질적, 심리적, 지적인 모든 환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 혹은 이해에 이르는 과정의 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Egan & Shera 1952, 132) 그리고, 이 분야가 성립되는 전제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① 개인은 스스로의 환경 속에서 「인식」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 ② 개인은 스스로의 환경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스스로가 체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③ 많은 개인의 다른 지식을 조정함으로써 사회는 전체적으로 개인의 지식을 초월할 수도 있다.
- ④ 사회적 행동은 통합된 지적 행동을 반영시키면서 개인적 행동을 초월한다.

개인의 인식과 사회의 인식의 유통과정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그것을 토대로 서지통정이론을 수립하려 한 장대한 시도는 그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며 이 논고는 선구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3.2 미시적 대 거시적 서지통정론

3.2.1 미시적 서지

서지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윌슨(Wilson 1968)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윌리시의 이론에서의 서지통정은 일정한 수의 문헌이 축적되어 있을 때에는 항상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문헌 리스트는 모두 서지라고 부를 수 있다. 도서관의 목록작업은 서지통정의 전형적인 예이며 열람목록은 일종의 서지이다. 또, 출판사가 자기회사가 발행한 도서목록을 작성할 경우에도, 재고를 조사하는 일은 서지통정이며 완성된 목

록은 서지이다. 이처럼 일정한 문헌의 콜렉션이 있을 경우에 그 목록을 만드는 일은 서지통정이 된다. 이러한 의미의 서지통정을 협의의 서지통정이라고 한다.

3.2.2 거시적 서지

협의의 서지통정에 주어진 문헌의 파악 과정을 더한 것이 광의의 서지통정이다. 문헌을 파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망라성의 원칙이다. 서지통정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는 작성된 문서와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서지통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작성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곤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발생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모든 문헌은 그것이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수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의 병존에 바탕을 둔 망라성의 원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서지통정의 실천은 불충분한 채로 끝나 버린다.

광의의 서지통정 개념은 '망라성의 원리'와 짝지음으로써 보다 강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광의의 서지통정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범위(지역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헌을 망라적으로 파악하고 리스트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서지통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파악된 문헌의 리스트화에 대해서는 '협의의'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로 한다.

3.2.3 미시적 서지와 거시적 서지의 비교

서지³⁾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 기관이 그 필요에 따라 만들면 된다고 하는 미시적인 견해와 개별적 서지작성을 상호조정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는 서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견해를 대응시켜, 후자의 우위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1950년대의 이건과 세라였다. 이 거시적인 서지통정에 대하여 그 비현실성을 주장하고 정면에서 비판한 것은 던킨이었다. 그는 그 주장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Dunkin 1953, 133)

- ① 미시적인 접근은 서지를 빈곤화시키고, 또 불균등하게 발전시켰다. 우리는 전체적인 서지의 계획을 필요로 한다.
- ② 거시적인 접근은 커뮤니케이션의 보다 커다란 틀 속에서 서지를 연구하므로 그 임무를 가능케 해 준다.
- ③ 그러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인식론이라는 보다 커다란 틀 속에서 비로소 가장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다.
- ④ 그러나, 사회인식론은 우리가 양질의 서지를 가질 때에만 발전시킬 수 있다.
- ⑤ 그리고 사회인식론은 너무나도 방대한 분야이므로 우리는 그것은 미시적인 요소에서 시작할 때에만 발전시킬 수 있다.

던킨은 사회인식론이라는 전체론적인 견해는 결국 개별적 서지작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시적 서지는 결코 이상적인 것은 아니

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장 좋은 것”(Ibid., 134)이라고 생각하였다.

4 요약 및 결론

정보매체와 통신기술, 특히 네트워크의 발달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지, 색인, 초록 등의 서지통정 자료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서지통정이라는 개념은 1946년 당시 LC 관장 에반스의 창의를 의해 탄생된 이후 전후 미국 도서관계를 리드해 나가려고 할 때의 키워드이며 도서관 정책의 모든 측면과 관계되는 말이었다. 나아가 그 과제를 학문적으로 계승하려고 한 이건과 세라는 사회인식론이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발전시켰다.

개별적 서지작성을 상호 조정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는 서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견해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 기관이 그 필요에 따라 만들면 된다고 하는 미시적인 견해에서 세라와 이건은 전자의 우위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런 단일 서지작성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국가 시스템으로서 서지통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유지하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네모토 아키라 저. 조재순 역. 문헌세계의
구조:서지통정론 서설, 서울, 도서
관협회, 2003.

패트 오디 저. 남태우, 최희곤[등]역. 경기,
한국디지털포럼, 2001.

김상미. "MARC기반 서지레코드 핵심데이
터요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김창하. "목록법 이론에 관한 연구", 중앙
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